

‘후후한 교사, 꿈틀거리는 아이들’



가정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초일교회 가정예배부

설교

여러분, 배가 너무 고했던 날 기억나요? 급식시간이 너무 기다려지거나, 맛있는 반찬이 나오길 기대했던 날 말이예요! 그런데 그 음식을 먹고도 또 배가 고했던 적 있으요? 오늘 성경에서도 배가 고프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바로 광야를 지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걷고 있었어요. 처음엔 자유를 얻은 게 기뻐지만, 날이 지나자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어졌어요.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자 백성들은 모세에게 불평했어요. “우릴 죽이려고 데려온 거예요?” 그렇게 말하기도 했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를 다 아셨어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주시고, 또 메추라기를 보내셨어요. 매일 아침 이슬과 함께 내린 그 빵은 달콤하고 고소했대요. 또, 마실 물이 없을 때는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매일매일 공급해 주셨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주시진 않지만, 꼭 필요한 것을 주시고, 우리가 감사함을 배우게 하세요. 그리고 진짜 만족은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에서 온답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가 불평보다는 감사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으며 살아가요!

함께 외쳐볼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먹이세요!”

예배 순서

사도신경 다 같이

찬송 나는 예배자입니다 다 같이

말씀봉독 출애굽기 16:31~17:7절 다 같이

설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 설교자

말씀나눔 다 같이

합심기도 다 같이

축복기도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주기도문 다 같이

★ 찬송과 축복 기도문과 말씀 나눔은 뒷면을 참조해 주세요

★ 합심기도는 가족원들의 기도제목으로 같이 기도해 주세요.

찬 양

나는 예배자입니다.



▶ 찬양 동영상 바로가기

축복기도문

사랑의 하나님,

광야에서 만나와 물을 주셨던 하나님처럼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셔서 감사해요.

힘든 일이 있을 때, 마음이 외로울 때, 하나님을 먼저 찾게 해주세요.

불평보다는 감사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나눔

1.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배고프고 목마를 때,
하나님은 어떻게 도와주셨나요?
2. 나는 언제 불평하고 싶을 때가 있나요?
그때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할 수 있을까요?